

“생활 속에서 체감하는 건강이 곧 높은 삶의 질”

생활에서 느끼는 건강과 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정채용 경상남도부지사



긍정적 사고와 최선을 다하는 행동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 말이 좋지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런데, 이처럼 어려운 일을 몸소 실천하는 꽤 괜찮은 사람이 있다.

정채용 경상남도 부지사.

인터뷰가 진행되는 동안 꾸밈없는 미소와 차분하면서도 확신에 찬 논조를 잃지 않는 그의 모습은, 삶의 좌우명이라는 ‘긍정적 사고와 최선을 다하는 행동’ 그 자체였다.

정채용 부지사의 정책 입안과 추진의 특징은, 도민의 실제 생활에 어떻게 도움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복지정책이 중요

그는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건강 시책을 묻는 말에, 『삶의 질의 핵심은 ‘아프다’는 말이 안 나오도록 하는 것』이라는 표현으로 답변을 시작했다.

『도민이 체온으로 느끼는 복지는, 생활 가운데에서 건강을 지키고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농어촌 노인·부녀자를 위한 건강진단 확대, 어린이 심장병·시력 검사, 그리고 일종의 직업병이라고 할 수 있는 농어업 종사 중에 나타나는 증상의 개선을 위한 휴게시설 설치, 청소년을 위한 만남의 광장 운영, 독거노인 위급상황에 대비한 자동응답시스템 설치, 근로자 자녀 장학금 지급 확대, 저소득층 생계 지원과 장애인 이용 시설 확충 같은 것이죠. 이처럼 작지만 생활 속에서 느낄 수 있

는 보건 정책의 실현이 이루어져야 보다 큰 의미에서의 지역발전이라는 것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함께 경남도는, 올해 5천여만원의 예산을 들여 도민 암표지자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28개 섬 대상의 병원선 순회 진료 실시, 해수 담수화 시설 8기, 소규모 소각로 2기 등 생활 환경 개선사업의 강화, 도민 취미교실 개발, 여성봉사운동 확산 등 도민 복지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한다.

‘세계 속의 경남’ 위한 10대 프로젝트 추진

물론 경남도민을 위한 사업이 ‘작은 것(?)’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특히 지자체의 본격적 실시와 오는 7월 15일자로 울산이 광역시로 승격됨에 따라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도세의 조기 회복을 위한 ‘도정 10대 핵심 프로젝트’를 구상·추진 중에 있다.

『거제·서북부권 세계적 관광단지, 김해장유 대규모 복합유통단지 조성 등을 비롯해 장기적으로 지역내 고속도로 신설, 마산항 광역개발, 부산-거제대교 건설, 지리산 자연개발, 함양 다극종합레저 시설, 도민불편 해소 등 경남 발전을 위한 10대 역점사업을 추진·시행하여 내적으로는 도민의 생활안정을, 외적으로는 세계적인 일류 경남을 만드는 일에도 최선을 다해야지요.』

정채용 부지사가 이처럼 크고 작은 일을 치밀하게 계획하고 추진하는데는 최근 몇 년 사이의 국내외적으로 변화된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나름대로의 판단이 있었기 때문이다.

『WTO 출범, OECD 가입, 지자체의 본격적 실시 등과 같은 대내외적 상황은 주민들이 당장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변화는 아닐지 모르나 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제는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아서는 열려진 세계 시장에서 더 이상 살아남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주민이나 행정이나, 생산·소비·유통의 과정이나 모든 것을 장기적으로 계획하고 대비하며 살지 않으면 안된다는 얘깁니다.』

원칙을 배제하지 않은 융통성

도민을 위한 행정을 펼치는 과정에서 ‘원칙’, 즉 배제되어서는 안될 잣대를 반드시 고수할 것, 그러나 융통성을 갖고 항상 도민의 입장에서 사고하고 행동할 것을 강조하는 정 부지사는 스스로도 이러한 원칙을 지키고자 노력한다.

매일 아침 6시 목욕, 역기 들기와 함께 그날의 일정을 계획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정 부지사는 자신의



〈정채용 부지사 약력〉

- 부산대 법대 행정학과 졸
- 대통령 정부비서실 근무
- 미국 아이오와 주립대학원 졸 (행정학 석사)
- 경남 남해군수(1988), 부산 해운대구청장(1991), 충무시장(1993), 창원시장(1994), 울산부시장(1995) 등 역임

건강을 위해 매주 일요일에 등산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도청 뒷산의 계단 1천개를 쉬지 않고 오를 수 있게 되는 것이 건강관리를 위한 또 하나의 목표라고 밝힌다.

평소, 수많은 지역 발전 계획 속에서도 환경에 대한 걱정을 잊지 않는 그는, 『한국건강관리협회가, 기존의 건강증진사업 외에도 환경운동 같은 자연을 살리는 운동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국민들이 보다 나은 건강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범국민 건강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주었으면 합니다.』라면서, 도민 복지를 위해 항상 동반자적 자세로 일해 줄 것을 당부하기도.

자신의 위치에서 여유를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것. 그 쉽지 않은 일을 실천하는 사람이 바로 정채용 경상남도 부지사이다. 77